논어 6편 옹야 4장 · 원문·풀이

子謂仲弓曰：「犁牛之子，騂且角；雖欲勿用，山川其舍諸？」

독음 · 자위중궁왈 리우지자 성차각 수욕물용 산천기사저

쉬운 풀이(요약) · 얼룩소에서 태어났어도 빛깔과 뿔이 제물에 맞으면 쓸 수 있다. 출신보다 본인의 자질을 보라는 뜻이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謂 고할 위 위 / 仲 버금 중 중 / 弓 활 궁 궁

曰 가로 왈 / 犁 얼룩소 리 리 / 牛 소 우 우 / 之 갈 지

騂 붉은 소 성 성 / 且 또 차 차 / 角 뿔 각 각 / 雖 비록 수 수

欲 욕심낼 욕 욕 / 勿 말 물 물 / 用 쓸 용 용 / 山 뫼 산 산

川 내 천 천 / 其 그 기 / 舍 집 사 사 / 諸 모든 제 제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